

품질 우선 · 고객 만족, 그라비아인쇄 업계 선도

1. 2공장 통합 · 확장, 도약 기대



신준배
두현산업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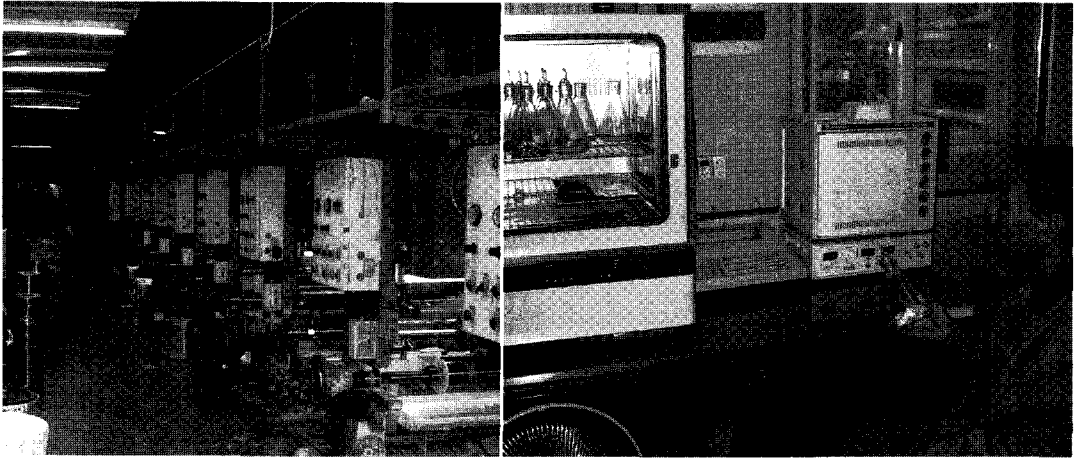
1954년~1960년, '국내 포장산업의 초창기'라 불렀던 당시, 국내 포장업계의 여건은 영세했지만, 산업 규모를 갖추며 포장산업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포장산업은 합성수지 원료 생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장재 개발, 포장방법의 개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현실. 그러나 현재, 국내 포장업계는 지난 50년대를 통털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단정지을만큼, 국내 내수경기의 부진과 국제적으로 치달는 원료가 상승이라는 토네이도 속에서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포장 관련 기업들의 경우 줄도산 하는 것이 태반. 국내 전 산업계에 걸쳐 위기로 다가왔던 IMF 시기와 지난 2004년, 두차례의 '부도위기'라는 어려움을 극복, 창립 10



▲ 두현산업이 주력 생산하는 김 포장지



▲ 그라비아 인쇄기

▲ 포장 시험을 통해 고품질 제품 생산

주년을 눈앞에 두고 제2의 도약이라는 포부를 내걸은 두현실업(대표 신준배)을 찾았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두현실업은 종합포장재 전문업체로 그라비아 인쇄 설비를 갖추고 전 포장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연포장업체이다.

포장산업 초기, 국내 대표 포장업체로 자리잡았던 한국포장과 한일실업에서 오랜기간 생산관리 및 영업일을 도맡으며 포장관련 노하우를 획득한 신준배 사장은 1995년 5월, 지금의 포천 자작리에 두현실업을 창립하게 된다.

여느 기업이나 창립 당시의 어려움은 비밀비제한 것이 당연. 창립 당시 2명으로

구성되었던 두현실업이 현재 2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 발전하기까지 신준배 사장은 '거래처와 의리와 신용을 지켜온 것'을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

각종 식품 및 제과류 등의 연포장 및 파우치 가공인쇄를 하고 있는 두현실업은, 현재 특수진공포장재와 P사의 김포장지 제품을 주력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P사의 김포장지의 경우, 기존 김포장지의 투명도가 고르지 못했던 것에서 탈피, 4개월에 걸쳐 인쇄특수공법을 개발, 방습효과를 최대화했으며 시각적으로도 '소비자 만족'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

작지만 내실있는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두현실업이 선택한 것은, 다름아닌 품질만족 기법.

2003년 10월 두현실업은 ISO 9000인증을 획득하면서 품질경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전체 생산공정의 불량율을 3% 이내 최소화하고 영업활성화로 매출액을 전년대비 20% 향상시키며, 고객만족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지난 97년 IMF 당시와 2004년, 두현실업은 신흥 거래처였던 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타격을 받아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된다.

신준배 사장은 당시를 회고하며 "열심히 하면 길이

DooHyun

있다”는 생각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결국 신 사장의 투지와 전 직원들의 품질개선 활동과 품질혁신, 그리고 15여년 이상 거래해 온 협력업체들의 배려는 두현실업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제품 출고시 철저한 검수 후 출고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현실업에는 ‘5분 대기조’가 있다.

차후 문제 발생시 “어느곳

이든. 어떤 문제든 5분내에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빛어낸 두현실업만의 차별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잔류용제검사장비를 비롯한 포장시험 장비를 보유, 철저하게 ‘정제품(正製品)’ 생산을 하고 있다. 다음 달, 두현실업은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다. 현재 두현실업은 인쇄작업공정이 이뤄지는 제1공장과 가공소가 마련된 제2공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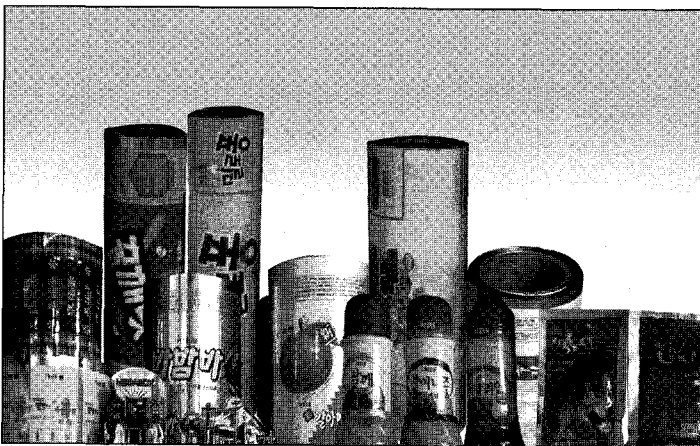
신 사장은 “올해 창립 10주

년을 계기로 양 공장을 통합, 확장하고 시설확장 및 개편을 통해, 두현실업의 도약을 꿈꾸며 창립 초기의 각오로 다시한번 숨가쁘게 전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국내 포장산업 여건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포장관련 체계적 교육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신준배 사장. 그는 포장협회를 중심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매우 반가운 일이라 표명하면서, ‘포장기술자’를 진정한 기술자로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포장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수 경기의 회복과 원유 가격의 안정이 불투명한 올해 국내 포장업계, 그 속에서 지난 10년간 시련극복의 노하우를 확립한 두현실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



▲ 두현실업 생산 제품